

느리고
깊은
샘



방 서 동 대 머 리 마 을 기 록 프 로젝 트

의미 있는 기록이란 무엇일까요



방서동 대머리마을의 어르신들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여쭙보면 ‘매일 그날이 그날이지 뭐, 특별할 것이 뭐가 있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매일 매일의 반복인 것이죠. 그런 조용하고 지루한 마을에서 저희는 그런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할까요.

흔히, 보통사람들이 가진 역사는 특별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할 만한 업적을 지닌 사람의 기록만이 가치 있다는 것은 기록이 행사하는 권력과도 같습니다. 역사는 그 권력을 중심으로만 기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고 유명하지 않다면 본인의 생애 기록을 남기는 것에 주저 합니다. 나의 인생은 보잘 것 없어 기록할만한 가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마을이 샘이 말라버린 이유도, 수백년 이어져오는 장독대가 빌라주차장에 방치된 이유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여겨서였을까요?

그래서 과거의 기록들을 물어보았습니다. 예전의 마을의 모습은 어땠는지, 지금은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았는지, 어르신들의 유년, 청년 시절의 사람냄새는 어떠 했는 지를요. 그렇게 과거의 기록을 정리하다보니 현재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 매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던 어르신들은, 놀랍게도 누구보다 변화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마을을 위해 오늘도 아침부터 일찍 나와 골목길의 화단에 물을 주고, 계단에 떨어지는 낙엽을 쓸며,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도시재생대학에 등교하십니다.

어떻게 매일 매일이 같을 수 있겠어요. 어제의 하늘과 오늘의 하늘이 다르고, 어제의 바람과 오늘의 바람이 다른 것일요. 느리게 그러나 누구보다 깊게 어르신들은 꿈을 설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을 사람들을 다독여 일으키는 청년회장님이 있었고요. 저희의 기록은 그 움직임에 작은 바람을 불어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방서동 대머리마을 어르신들의 기록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마음자리를 잘 담아 이곳에 풀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의 마지막에는 다음세대를 위한 그 어떤 가치가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웅동 조미자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어요?

[한] 그럼요.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지가 시조 할아버지때 부터니까. 34대손인데 34대를 여기서 살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갈수도 없고요. 여기가 그냥 내 생활의 터전입니다.





어렸을 적 결혼하시기 전에 마을 모습이 어땠나요?

[한] 옛날에는 초당집, 기와집이라고 하는 건 4채 밖에 없었고 전부 초가집이었어요. 담도 전부 돌담이었었고. 마을에 길이라고 하는 게, 하수구 없으니까 비 오면 그냥 도랑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내려오는 물은 논으로 들어오고요.

우리 마을에는 방정이라고 저 위에 샘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듣기로는 고려 초, 태조왕건이 고려 토벌할 때 말이 천 필이 와서 거기 물을 먹었는데도 물이 남아돌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은 체육회관이 들어와 지하수를 다 뽑아가서 물이 말라서 없어요. 건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은 도 지정 문화재가 되었고요.

어릴 때 샘에서 뭐 하고 노셨던 기억이 있으세요?

[한] 이 동네가 아래위 두 동네였어요. 동넵, 서넵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쪽에는 저 위에 방정 샘물을 먹었고, 이쪽에 서넵 사람은 서넵 샘물을 먹고. 서넵 샘물을 지금은 메워서 없어졌어요. 샘이라는 것은 동네가 다 아는 방송국이에요. 집안 대소사부터 모든 사람들, 동네 뉴스는 다 거기에서 전해진다고 보면 돼요. 빨래하고, 보리쌀 행구면서 아주머니들이 전부 이야기를 하죠. 어디 모여서 요새같이 좌담회 같은 게 있나 뭐가 있나, 사랑방 있으면 남자들은 사랑방 가서 얘기하면 전해 듣고 그렇지 않으면 뭐든 동네 돌아가는 일은 샘에서 일어났었어요. 샘가에서 누구 집에 뭐가 어땠고, 저땡고 모든 돌아가는 뉴스는 샘에서부터 일어났죠.

“뭐든 동네 돌아가는 일은 샘에서 일어났었어요.”



우리는 그런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제사지내고 마을 일 있으면 다 가서 돕고 그랬지요.



대머리라는 마을 이름이 ‘큰 대’자를
쓰는데. 마을이 크다 해서 대머리마을
이라고 불렀어요.

어머님은 시집오셨을 때 동네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조] 그때만 해도 아직 주위가 그렇게 발전이 안 되고, 용암2동에 아파트가 생기기 전이라 다 들판이고 밭이고 논이고 그랬었어요. 아파트 같은 큰 건물이 거의 없었죠. 지금은 달동네가 되어서 그렇지, 여기는 본래 청주한씨 집성촌이거든요. 본관이 청주인데. 대머리, 방서동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죠. 대머리라는 마을 이름이 ‘큰 대’자를 쓰는데. 마을이 크다 해서 대머리마을이라고 불렀어요.

[한] 지금 이 앞의 자이아파트 자리, 여기는 왜정시대 때 백금, 사금을 팠던 금광이 있었어요. 나 어렸을 때는 방죽이었고요. 돌 쌓아 놓고, 물 있고 거기에 고기도 많았었고. 그것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57년도 쯤 메워서 논을 만들어서 쓰고 했었어요. 방서동이라는 범위 넓이가 요 밑에 허삼고 개라고 있어요. 용암동 고개인데, 거기서부터 저쪽 장성동, 장암 옆에까지, 그리고 운동리 저 앞 길 장길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가 전부 방서동이었어요. 그렇게 넓었던 동네가 바로 대머리마을이었죠. 남일면이었다가 청주시로 편입한지가, 아마 83년도쯤. 편입해서 청주시로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남일면에서 제일 큰 동네였습니다. 가구 수도 제일 많고 큰 동네였어요.

시집 왔는데 한씨 집성촌이라 주변이 다 시댁 어른이었을텐데 안 힘드셨어요?

[조]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다 동네에 작은어머니, 큰어머니 다 아시니까 힘들긴 했어도 내가 성격이 좋아서 다 잘 이겨냈지요. 그래도 어른들이 다 같이 사니까 좋은 점도 있었어요. 큰일 할 때, 마을 행사 있으면 내가 잘 모르니까 와서 가르쳐주시고, 전 다 그대로 따라했어요. 우리는 그런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제사지내고 마을 일 있으면 다 가서 돕고 그랬지요. 명절 때도 보면 상을 하나만 차리는 게 아니에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누구누구 상을 네 개 방마다 다 차리고, 부침개를 하면 산더미처럼 해야 되고, 음식도 엄청 많이 해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먹으니까.

그렇게 집집마다
택호가 다 있었어요.
없는 집이 없었죠.



제가 30대 초반부터 그런 큰일들을 다 해
냈어야 했어요. 그걸 처음에 와서는 잘 못
했어요. 작은어머니, 큰어머니들께 다 주
위에 물어보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나
간 거죠.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은 좀 간소화 되서 많이 나아 졌어요. 사
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고요.

예전의 북적한 마을이 조용해졌네요.

[한] 시대가 그러니까 뭐. 지금 아파트
위층에 누가 사는지, 밑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여기도 거의 달동네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누가 이사
를 오기는 하는데 바로 뒷집, 뒷집인데도
서로 왕래를 하지 않으니까, 서로 알 길
이 없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도 우리 마을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살
고 있는 일가친척들은 다들 알고 지내잖
아요. 우리 때는 택호라는데 있어서 친척
들 분들 집을 ‘누구네 집’ 이렇게 불렀거
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구름바위쪽이
었고, 증조할아버지택은 학자택이었고,
그리고 그 위에 집은 진사택 이렇게 불
렀지요.

[조] 여자들은 대부분 어디서 시집오면
자기 친정동네를 따서 무슨 댁, 무슨 댁
그렇게 불렀어요. 새댁 이름을 부를 수 없
으니까. 시집 온 친정동네 이름을 따서 무

슨 댁, 무슨 댁. 그렇게 집집마다 택호가
다 있었어요. 없는 집이 없었죠.

우리집 이름이었던 택호, 지금 우리는 집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한] 그런데 요새는 택호를 잘 안 쓰죠.
예전에는 애경사라든지, 그런 집안일이
있을 때는 그냥 이름 대면 잘 모르니까
택호를 얘기해야지만 알았어요. 진사이
면 진사댁 누구 큰애 혹은 둘째가 결혼한
다더라, 어느 댁 누가 상을 당했다더라.
지금도 우리 동네 방송을 하면, 택호를 가
지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엄청 중요하죠.
집성촌이었던 여기에서는 택호가 있어
야만 그 집을 찾고, 누구네 무슨 일이 있
고,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마을이 이제는 달동네가 되어 놓으니까
시에서고 어디고 쓴 외 보듯 하잖아요. 쓴
외 보듯 한다는 얘기는 쓴 외, 쓰고 맛없
는 오이를 보듯 한다는 말이에요. 너무 하
찮게 여긴다는 뜻이야. 오이가 맛있으면
먹는데, 쓴 오이는 안 먹잖아요, 버린다는
얘기죠. 우리 마을이 그런 존재인 것 같
았어요. 마을이 그런 식으로 취급받는다
고 생각했던 것이 작년에 도시재생사업
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대상을 받고 준
비하는 과정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
니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없는 예산이지
만 동네 꽃길 가꾸면서 동네사람들이 노
력을 많이 했죠.



우리집 이름이었던
택호, 지금 우리는
집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마을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한] 앞으로 동네가 발전되고 하려면 시에서도 공원 조성보다도 시급한 것이 바로 옆의 마을이 아니겠어요? 시내 보도블록 멀쩡한 것 같고 하는 예산 말고 정말 제대로 써야 하는데 썼으면 좋겠어요. 사실 금방 얘기해서 되는 것은 물론 아니죠. 우리 집도 바로 옆이 큰 도로인데, 여기 도로 파헤쳐놓고 가면, 트럭 한 차만 지나가도 지진 나는 것 같이 집이 흔들려요. 그래서 도로 저것 좀 다시 포장해달라고 얘기하면 대답은 예 하고 오는데, 또 기다리면 9월에 한다, 10월에 한다, 자꾸만 미뤄지죠. 동네 하수구 내려오는 것도 여름엔 냄새가 심해서 하수구 뚜껑 좀 해달라고 해놓으면, 주민동의를 받아달라고 해요. 그래서 어렵사리 주민동의서를 받아 제출해도 진척이 더딥니다. 다른 동네는 여기서 남일면 저쪽까지 정화조를 직수관으로 하는데 여기 마을은 아직 안 해줘서 정화조를 집집마다 따로 묻어야 됩니다. 또 도시가스도 바로 옆 아파트도 다 들어오는 마당에 우리 동네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면 동네 호수가 많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돈을 모아서라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도, 기본 시설이 들어오는 데는 시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도통 진행이 되질 않아요.

**“문화재는 보호되지만,
주민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마을은 아닌지”**

결국 주민 편한 것은 하나도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달동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예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해도 여러 문제점도 있어요. 한월동고 가라든지, 방정 샘이라든지 이런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문화재 반경 얼마 안에는 집도 못 짓게 해놨거든요. 점점 달동네를 못 벗어나는 것이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건물을 짓고 싶어도 문화재 근방에 있는 동네라서 3층 이상 고도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못 짓게 하니 곤란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재산권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없는 자못 억울한 상황이죠.



고영희 신대휴

동네에는 언제부터 사신건가요?

[신] 여기서 안 태어나고 고향은 낭성이야. 낭성 산성 거기 살았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결혼했어. 6.25사변 난리 나고서 결혼했지. 이 양반 금방 또 어디 군대 간다고, 가야한다고 해서 시아버지 성화에 마루에서 찬물 떠놓고 예를 갖추고 결혼을 했지. 그래서 나는 마루에서 절하고, 이 사람은 방에서 절하고. 그리고나서 의용군을 가게 된 거지. 내가 세 나라 전쟁을 했어. 일본군 전쟁하고, 인민군 전쟁하고, 한국전쟁하고.

[고] 이 양반이 군대 가서는 한 걱정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은 죽었다고 편지가 온 거여,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데 글썄 살아서 온 거여. 목숨 줄이 길었던 게지. 농사짓다가도 몇 번 병원에 실려 갔어요. 그 때 딸이 직장에서 하얀 옷을 입고 다녔는데, 글썄 커피를 옆질러서 집으로 갈아입으러 온겨. 그



“힘들 때 이사와 많은
위안이 되었던 마을 사람들.
텃새는 모르고 살았지,
그때는. 다들 힘들었으니까.”

런데 이 양반이 농약하다가 와가지고는 혼자 여기서 드러 누워버렸어.
잘못된기지. 그때 우리 딸이 바로 병원데려가서 그때도 그렇게 살았어,
이 양반이. 그때도 저 양반 목숨 떨어지면 이 농사거리 다 어떻게 하나,
이 걱정 먼저 들더라고. 사는 게 뭔지. 큰일 났어, 이거 뜯어 들이기가.
그런데 또 죽도 안하고 살아와. 하여튼 목숨 줄이 길어서 지금도 이러
고 있는 거요. 나는 남의 일을 다니면서 돈을 벌었는데, 어디 놀 새가 있
어. 부지런히 벌어야 자식들 목구멍 치다꺼리라도 하지.





지금은 4남매, 둘씩 낳아가지고 손자손녀가 여덟이여. 그렇게 없는 가정에서도 이양반이 제대하고 여기 들어와 살았지. 여기서 살면서 애들 키우고 힘들게 살았어. 애들은 아버지, 엄마 노동일 하는 걸 보니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알았어. 그래서 아들네들이 크더니 우리는 힘든 노동, 그런 일 해서는 안 된다고 잠을 안자고 공부를 하는 거요. 그래서 큰아들이 커가지고 현대조선소를 갔어. 큰아들이 잘해서 동생들도 다 대학교 나오고 엄마아버지도 이렇게 잘 사는 거요. 큰아들이 나중에는 대학 안 나오면 밥도 못 먹고 산다고 그저



대학가야한다고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열심히 벌어서 동생들 학비를 대가지고, 그래서 작은애들은 아들 딸들은 다 대학 나왔지. 그래서 다 직장이 잘 돼서 서울에 다 살아서 두 늙은이만 여기서 살아요. 그래도 말없이 돈이고 먹을 거고 장만해주고, 사위는 저녁 먹고도 왔다가 고 하지. 며느리들이 맛있는 거 장만해오고 하니까 며느리들 덕택으로 살아요. 그래도 내가 나이는 많아도 건강은 나으니까 이 양반 치다 꺼리도 아직까지 하니까는. 아주 효자들이여 자랑하면 안 되는데. 아주 온 정성을 다 바치는겨.

처음 오셨을 때 마을 모습이 어땠어요?

[고] 이 양반이 제대해서 오니 저 산위에 마을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여기서 살면 자식 생겨도 성공 못한다고 해서 여기 큰 마을로 내려온 거요. 큰 집에서는 힘들다고 못 가게 하는 것을, 우리 두 몸땡이 와서 고생도 엄청 했어요. 이 동네가 한씨 동네 아니여. 옛날 그 양반 노인네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우리를 잘 도와줬어요. 처음 와서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프냐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래서 잘 살아나왔는데 애들이 크니까 엄마 아버지 그런 일 해서는 집을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공부로 풀려야 된다고 잠도 안자고 공부를 파요. 대견했었지. 처음 오니 뭐 다 초가집이었었지. 짚을 엮어가지고. 지금은 상수도 들어오는 바람에 물줄기를 파내서 샘물이 말랐는데, 그 샘물이 예부터, 동네 시조 때부터 먹던 샘이었지. 지금은 다 말라서 시늉만 남아 있는겨.

요즘은 경로당도 못가고 뭐하세요?

[신] 그냥 두 노인네 앉아 쓸데없는 소리 지껄이고 그렇지. 갈 데가 없어서 큰일이여. 경로당에서도 앉아서 좌담이나 하고 그런 재미였는데. 옛날 군인애기 하고. 그것마저 없어지니 절간이지.





한 고 석

여기서 몇 년 동안 사신 거예요?

1979년도. 안동댐에 수몰이 되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죠. 그때 우리 선조가 수곡동에 있었는데, 예전부터 다니던 연고로 해서 이 마을로 오게 되었어요. 식구는 아홉 식구를 데리고, 어머니 모시고, 들어와 지금까지 살고 있죠. 이후에 어머니는 2001년도에 돌아가시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일가 여러분들 덕택에 살고 있어요.

안동댐 수몰되고 이쪽 마을로 오셨을 때, 마을이 이정도 크기였나요?

아이고, 더 컸지. 그 당시에는 저 미평, 분평동 거기가 전부 우리 방서동이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구장을 79년도 2월 15일자로 했거든요. 원래 구장 보던 이가 안 보게 돼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걸 구장을 10년 째어요. 여기 방서동이 83년 2월 15일에 청주시로 편입됐어요. 원래는 남일면으로 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구장이니까 농협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청주시로 이관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심부름이 지 뭐. 전에 구장 보수라는 거는 동네에서 보리 한말. 나락 한말. 그거 받아가지고 아홉 식구가 사니, 얼마나 말할 수 없지요. 큰애를 간경화로 먼저 보내고. 여기 공원묘지 생기고 침으로 가서 묻어줬어요. 그것까지 내가 자식이 다섯이야. 지금은 뽕뽕이 흠어져 살고, 저는 저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안식구 지금 병원에 있는 거, 노령연금 타가지고 자기 꺼하고 내고 해가지고. 나를 차상위 계층으로 해주더라고. 그래서 한 달에 평균 45만원씩 받아서 마을에서 지내고 있지요.



마을들이 다 친척분이셨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대여섯집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러 집이었죠. 우리 동네에서 큰일 나면 방송이 없을 때는 ‘누구 초상났다, 누구 예식한다.’하면 젊은 자손들은 가마 메고 가고 그랬지. 그게 다 예전에는 마을일이 다 우리 일이었지. 두레, 품앗이 이런 문화인거야. 이제는 그런 게 다 소멸되고 똑같아졌어. 그러다보니 마을은 점점 삭막해지고, 이제는 달동네가 돼서 아파트에 다 가려지게 된 거야. 우리 동네에서 맘이 좋아가지고, 아파트 들어온다고 할 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랬지.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청년회장이 본래 인천에 있었는데, 이사람 우리 종손이라 나한테는 손자뻘이 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마을일을 도와 주니 고마울 따름이지요.



여기에 살면서 한 십년 지나고, 또 이 집 사가지고 식구가 많으니까 여서 더 한 십년 말아가지고 동네 심부름꾼을 했지요. 그리고 우리 종손이 재생사업에 사무국장이 되어 들어와 낙후된 우리 동네를 일으켜 세우느라 힘을 내고 있죠. 예전 우리 근본, 청주 한가들의 시조 할아버지부터 청주 한가의 발산 지거든 여기가. 이래서 아이고 이렇게 쇠퇴해가고 달동네가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다 같이 그 사업을 해 봅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고맙고 암튼 죽을 때까지 동네를 위해서, 배운 건 없더라도 마음 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모여서 몇째 날 회의를 해요. 그리고 도시재생대학교도 가야 돼요. 거기 선생님 말 한마디라도 들으면은 버릴 게 없어. 다 쓸만하고 우리들 세대하고 현재 세대하고 차이가 많거든, 안 그래요? 얼마나 좋은 세월이고, 우리들 때는 켜켜묵은 예전 지나간 세월이고 현 세월은 틀리다고. 서로 깨우쳐야 되고, 주민들이 깨우쳐야 되고. 우리 일가 분들이 깨우쳐서 동네를 위해서, 부락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각자가 먹어야 한다고.





마을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면 좋으시겠어요?

도시에는 젊은 분들이 많지만은, 우리 부락을 위해서 신경 쓰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젊은 축에서는. 그래서 이게 난감하고. 우리 노인들 측에서는 65세 이하는 그래도 젊은 축인데, 이 사람들이 동네일에 협조하고,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마을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지요. 꽃길 조성할 때 젊은 새댁들이 나와 꽃 심어서 꽃길 조성하고 물도 주는 것을 보면 정말 잘합니다. 물론 한가들이 특히나 일을 많이 하지만 아닌 분들도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 보면 정말 욕보셔요. 누구라도 우리 마을 사람이라면 나와서 부락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뚝뚝 뭉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아침이고 저녁이고 꽃에 물을 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고맙습니다.

원래는 이쪽이 해가 너무 잘 드는 동네네요.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서 딱 막혀가지고 별이 안 들어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우린 아주 달동네래. 서울도 그렇고 전국에 대도시에도 달동네도 있지만은 청주에서는 지금은 방서동인 것이지요. 처음 우리 도시재생 사무국장이 인천에서 내려와 여길 보고는 너무 낙후되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살던 동네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 말이 되냐. 하는 거지. 방송을 해도 나이 든 사람들은 봉사정신으로 나와서 참여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아무래도 참여 하는 게 좀 그래요

사실 이 동네가 옛날 남일면 있을 때 가장 큰 동네였고, 청주 대머리라고 하면 다들 알아주는 동네였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렇게 영광스런 마을이 너무 초라해졌어. 그게 좀 아쉬워서. 어떻게 하면 과거와 같은 작지만 이름 날리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 이해주의적인 사람들을 볼 때면 아쉽죠. 내 손에 얼마의 이득이 들어오는가, 그것만을 따지는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마음이 모아졌는데, 그건 희생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희생을 바라면 아주 난리가 나겠지. 정말 너무 아쉬워.



김영구

여기 마을에서 몇 년간 사신 거예요?

오래 살았지 뭐. 스물다섯 살에 시집와서 여지껏 살았는데 뭐. 신랑도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시집왔어. 그때만 해도 맞선 봤다는데 나는 옛날 시아버지들, 아버지들이 하도 무서워서 그냥 왔어요. 나는 보은 속리산에서 컸어요. 시집오면서 여기에 살게 된 거예요.

옛날에 시집 왔을 때는 마을 모습이 어땠어요?

전부 초가집, 기와집이고 이런 집들은 없었죠. 옛날 흙길이고, 옛날엔 다 그랬지. 우리도 흙집에 살았는데 뭐. 근데 비가 오니까 그게 허물어져가지고요. 흙집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박정희대통령 때, 새마을길 시작하면서 마을길도 시멘트 길이 되었어요. 집도 시멘트로 하고. 우리가 고무다라이로 흙 퍼다 부어가지고 새마을 길 한 거예요. 그땐 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일하면서 다라이를 여다 붓고 했죠. 젊은 엄마들도 다 했어요. 그리고 저 앞이 다 뽕나무밭이었어요. 산이고 뽕나무밭이고 그랬어요. 시집 와가지고 그거 다 보면서 흙길에서 바꾸면서 살았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는 밭에 나가 험한 일은 안하고 시아버지가 논, 땅이 많으니까 일바라지를 많이 했죠. 새참 갖다 주고 점심하고 이런 걸 많이 했죠. 시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니까. 신랑은 신문사에 다니고 시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고 일꾼을 데리고 그렇게. 부잣집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먹고는 살았죠. 그렇게 시집와서 시아버지, 시할아버지까지 모시면서 바깥에 나가는 것도 모르고 살림만 하고 살았어요. 시집 오니까 하얀 머리, 수염에 할아버지도 한 분 계시더라고 사랑방에. 시아버지말고 또 할아버지. 시할아버지인거지. 그래도 다 모시다 시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모시다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은 거예요



지금 큰 샘도 우리 시조할아버지가 잡숫던 물이라는데, 지금은 체육관 같은 게 들어서면서 그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고, 떨어지고 해서 좀 아쉽지요. 그 전에는 물이 철렁철렁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막 떠먹고 그랬었어요. 동네사람들도 그 물만 먹고 살고. 그랬는데 지금은 물이 바짝 마르고 그 안에 풀만 있고 그런 것은 아쉽죠. 우물이 시조할아버지때부터 내려오는 거라 마을 사람들이 극진하게 살폈어요. 지금도 여기는 해마다 시조할아버지 산소 가서 제사 지내거든요. 예전에는 온 마을 여자들이 다 가서 차려주고 했죠. 지금은 많이 안하고 다들 줄여서 해서 편해졌어요.

샘에서 있었던 일 중 재미난 이야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재미난 일? 뭐, 물 여다가 먹고 했으니까 위로 가면은 남자들이 쳐다보기도 하고, 예쁜 새댁이 물 여다가 하면 몰려가고 하니까. 젊은 애들은 그렇게 구경하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우리는 물 많이 길었죠. 쓰고 떨어지고 없으면 가서 또 길어와야 하고 밤에도 길러가야 했으니까. 물 여다 먹고 나중엔 빠르게 들어다먹고 그랬지 뭐. 우물에는 둥근 뒷박 밖에 없었어. 거기서 물 퍼가지고 빨래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재미있었어. 젊을 때라 힘든 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빨래하면서 시아버지 얘기도 하고, 신랑 얘기도 하고. 뭐, 거기서 시어머니 얘기도 하고 그랬지. 빨래하면서 서로 바라보고 앉아서. 나는 시집와가지고 아들을 둘을 낳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들이면 그만이었어요. 딸 낳은 젊은 사람들은 막 시집살이를 하느라고 고생하는데, 나는 아들을 낳아서 시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살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동네 동무들이 형님은 딸을 안 낳아봐서 시집살이는 모른다고 그랬었어요.



마음이 많이 화사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마을이야 사는 것은 자꾸 좋아지니까. 내가 나이를 먹어 아쉽지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여기저기 방치되는 곳들이 많았는데, 마을개선사업하면서 그 구석탱이 풀만 수북하던 곳에 꽃 심고 하니까 참 좋아요. 우리는 물주고 그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혼자 한 것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하니까, 마음이 화사해졌지요. 꽃은 봐도봐도 참 좋잖아요. 나는 사실 마을이 어떻게 변하면 좋겠다 이런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도시재생 그거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니까, 둘러보며 꽃에 물이나 주고, 우리 애들 돌봐주면서 사는 게 좋아요.



한 격 동

**어렸을 때 동네의 모습
기억나는 거 얘기해주세요**

여기는 이제 우리 청주 한씨의 세거지의 본산이라 그래 여기를. 객지에 가서도 청주 한씨라고 하고 청주가 집이라고 하면 특히 대머리가 집이라고 하면 우리 한씨들을 예우를 해줘. 본 시조할아버지의 세거지를 모시고 사는 종손의 종인이라고 해서 엄청 예우를 받고 있거든.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청주 한씨 외에 다른 다승을 가진 사람은 두집 내지 세집. 다승이 살았느냐 하면 동네일을 해 주느냐고. 옛날에는 소염이라고 해서 동네의 굶은일을 맡아서 해 주는 사람. 그 외에는 전부 한씨였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외지로 나가서 살지만 그때의 약 70% 정도가 한씨. 한씨가 살았는데 그중에 세 집만 다승이 살았었어요.



주위가 전부 개발이 되었지. 특히 아쉬운 거는 앞에 어려서 뛰놀던 안산이라는 재미있는 산이 있었는데, 한 천 오백 평정도 됐을 거야, 아마. 거의 평지인 산이었었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버려서 안타깝지 뭐.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니까 이 주위의 옛 모습은 전부 사라지고, 살고 있는 여기 일가들도 많이 떠나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옛날같이 세세손손 지내온 이 지역에 서로의 끈끈한 향토애라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 내가 육십여덟인데 안타깝기도 하고.

옛날에는 동네에서 같은 한 나이래도 생일이 빠르면 무조건 형이라고 불렀어. 그렇게 안 부르면 어른들한테 엄청 혼나고 내 밑으로 생일이 조금만 어려도 형 그렇게 지내왔어. 내가 형이어서 좋았던 게 아니라 그렇게 온 마을 아이들이 다 형제처럼 지냈다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아침마다 동네어른들 보면 문안인사 드리고. 세상이 발전이 되었지만 옛날 고유의 미풍양속을 이어가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고. 동네에 내 친 형제는 아니지만 가족들이 다 모여 사니까 거의 한집이었다고 봐야지. 한 집에서 8촌까지 나왔거든. 옛날에는 그렇게 지냈어. 그때는 누구네 집에 뭐 있고 밥숟갈 뭐 있는 것까지 다 알았으니까.









동네에 큰 샘이 동넙샘이라고 그랬어. 방정은 동넙샘이고, 저 밑에가 서넙샘이라고 있었는데 그건 메꿔버렸어. 저 쪽 밑에 신작로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일본말이거든. 새로 만든 도로라고 해서 신작로라고 하는데, 그쪽 사람들은 서넙샘. 여기는 동넙샘. 이렇게 물을 떠다가 마셨지.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샘에 모여가지고 동네에 일어나는 거는 전부 거기에서 다 얘기가 이루어지는거야. 그러니까 아침이면 어제 밤이나, 저녁에 일어났던 일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누구네 집에 싸웠더라 누구네 집에 얘기를 낳았다 전부 거기서 나오고 그런 식이었지.

마을이 변화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뭔가 하나 동네에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종종사람들이 많으니까, 땅도 종종 땅이 많고. 이 사람들이 좀 의견을 모아서 마을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땅을 내놓거나 산이 개발되면 돈만 가지려고 찾아오는 거야. 그런데 이 동네를 오랫동안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정세에 어두워.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있으면 여기 개발한다더라, 빨리 팔아라 이런 금전적인 이해가 밝은 거야. 그래서 원래 주민들과 외지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종 사람들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지.



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작년에 음악회를 했는데 그런 게 자주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 여기 도시재생 사무국장인 한노동이가 거의 젊다는 대표로 하고 있지. 마을 어르신들이나 다른 주민들이 이 젊은 애들한테 호응을 실어 줘서 개들이 뭔가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하는 거야. 여기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다 고령이라서 그게 좀 힘들지. 옛날에 여기를 좌지우지 했던 사람들은 다 힘이 빠지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지금 마을을 바꿔보겠다는 사람들에게 많이 힘을 모아주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어떤 행사든 하자고 하면 꼭 참석을 해서 같이 재생사업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도 사무국장이 와서 구체적으로 일을 추진하니까 되는 거지,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예전에는 노인네들 몇이 모여 봐야 이렇게 하자고 하면 따라가고 했는데, 사무국장은 체계적으로 다 일을 하니까 내가 얼마나 실통한지 몰라.

“지금 마을을
바꿔보겠다는
사람들한테
많이 힘을
모아주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마을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우리 대머리마을의 문화재가 몇 개 있어요. 방정하고 한월동고택하고 무농정. 그거 때문에 개발을 자꾸 보류해. 하면 하는 건데 관에서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동네가 달동네가 된 거지 뭐. 그리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개인 땅이 별로 없어요. 토지가 종종 땅이야. 종종 소유 토지가 80%정도지. 그래서 새로 지은 건물들은 종종 땅이 아닌 거지. 종종에서도 종인 아니면 집을 못 짓는다.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주는 거야. 그게 제일 낙후된 원인이라고 봐. 그 종재산인 종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 밖에는 없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을 발전을 막는 방해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종종 이외의 사람들은 집을 지을 수 없게 막는 경우가 생겨버리는데, 이 문제를 좀 더 수면위로 꺼내는 것이 어떨까 싶어. 외지사람들을 좀 잘 받아들이면서 한마을이 될 수 있도록, 배타적인 면들을 조금 버려야지.

문화재 때문에 개발이 막혔으니 주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많죠. 제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청주시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지금은 해제가 됐지만 근 20년을 동네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놔. 그것 때문에 건축도 못 하게 된 거야. 도시계획선은 마을의 지형이나 골목을 고려한 선이 아니라 딱 직선이거든. 그런데 우리 마을길은 옛날 거라 구불구불하니까 이거를 고살이라고 했어. 고살은 꼬불꼬불한 옛날 길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 게 많지 당연히. 그런데 딱 선을 딱 그어버리니까 여기도 물리고 저기도 물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집을 못 짓는 거야. 신축을. 이제 그런 건 해제가 됐는데 여기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에서 마을 상황을 많이 고려해줘야 되겠지. 지금 이 문화재 세 개 때문에 많은 지장이 있는데, 그걸 기념물로 하되 반경 50m나 30m 정도로 기념물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면 건축 허가를 내 줘야한다고 생각해.



한 천 동

**마을에서 보낸
어린 시절 이야기 들려주세요.**

옛날에 어려서는 제기차기도 하고 별 거 다 했지. 윷놀이도 하고 자치기라는 것도 하고, 자치기는 나무때기 하나 잘라서 치고 던지고 하는 놀이였지. 흙 파놓고 나무때기 걸쳐놓고 작대기로다가 탁 던져서 멀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놀이였어. 그리고 돼지 오줌보, 그걸 가지고 공 마냥 만들어서 놀고 그랬지. 그렇지 않으면 짚 같은 거 감아가지고 공이라고 차고. 지금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얘기일 거야. 모르니까 얼마나 재미난 건지도 하나도 모를 거야. 또 기억나는 것은 내가 제기차기를 엄청 잘했거든. 매번 1등 했어. 보통 200번-300번 찼으니까. 그 때 몇 살인지 나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6.25때 쯤 내가 아홉 살이었을 거야. 공기도 잘하고 여자들하고 하면 꼭 1등 했어. 착 받으면 공깃돌이 손에 소복하게 올라앉아있었어. 그런 게 오락이라고 할까 요새? 그렇게 살았지 뭐. 저 앞에 지역 아동센터 애들 있거든. 그 아이들도 이런 놀이 같이 하면 참 좋겠다, 내가 가르쳐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



6.25 전쟁 때 동네에서 일어난 일 기억나는 거 말씀해주세요.

피난을 산으로 갔는데 그때는 요새마냥 텐트가 있나 뭐 있어? 산에 가면 덩불이 있어. 가시 같은 게 엉겨가지고 덩불이 되어 올라가거든. 그럼 그 위로다가 풀이 크고 침이 올라가고 그러면 요새 텐트 식으로 된다고 그게. 거기서 생활을 했어, 그 속에서. 피난을 오래는 안했지. 피난을 갔는데 바로 뒤에 와서 대포탄이 떨어지는 거야, 그냥. 운명이라 살았는지 포탄이 우리 있는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떨어졌어.

지금으로 말하면 가덕 내암이라는 곳으로 피난길을 갔어. 어른들이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지. 그러니 정말로 운명이 참 하늘에서 났다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신기할 따름이야. 그때 대포탄 맞았으면 아무것



도 모르고 그냥 생이 끝나는 거였잖아. 배가 고파서 배를 끓던 시절에는, 나라에서 퇴비 하라고 나오는 콩깨 같은 게 있었어. 이런 거 나오면 배가 고프니까 먹었지, 그냥. 퇴비 하라고 나온 거였는데. 또 그때 알라미 쌀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석유냄새가 많이 나는 쌀이었어. 석유 많이 나는 나라에서 온 쌀이었겠지. 그때는 여기서 농사지은 게 없었으니까. 그래도 그 밥은 냄새나서 안 먹었어, 못 먹은거지. 그 대신 속을 뜯어다가 쌀을 한 움큼 넣어서 한 숟씩 끓여가지고 먹었어. 식구들은 많고 그걸로 배를 채우고 산거지 뭐. 지금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면 딸래미들이 라면도 없었냐고 하더라고. 참 그 말을 듣고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더라고. 전쟁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더라고. 그렇게 어두운 세월을 지나왔으니.

오랜 시간 함께한 마을이 어떻게 변화되길 바라세요?

난 도시재생대학을 처음부터 들었지. 시내도 가고, 뭐 여기서도 동사무도에서도 여러 번 하고 계속 참석했지. 하면 좋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 동네가 달동네가 되었잖아, 완전히. 개인적으로는 다 잘하는데 공적인 일들을 사람들이 안하더라고. 바깥에 햇빛을 막아놓고 집을 높게 지어도 누가 말 한마디도 안하고. 제일 먼저 설계하고 시공하기 전에도 벌써 지하 몇 층 지상 28-9층이라는 것을 알고도 누구 하나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 지어놓고 나니까 그제야 때는 지나간 거지. 내일이 아니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지금 우리 마을이 이렇게 해도 못 받게 된 거야. 이 세상이 이렇게 박해지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게 참 모순이야.

그래도 도시재생대학하면서 동네 사람끼리는 잘 뭉쳐지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전에는 모임 하면 잘 안 나왔는데 요새는 잘 나오고 마음이 많이 바뀐 것 같아. 그 중에도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지만.





그리고 우선은 민심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 민심이 자꾸 까다로워지면 살 수가 없어. 마을도 좀 깔끔하면 좋겠고. 옛날 집만 수두룩하지 현대 집은 없잖아. 지금 봐서는 단합이 잘 되니까 잘 될 걸로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하면 다 쓰레기 같은 곳에서 사는 거지.



깔끔해야 편하고 좋지. 이게 도시재생을 보니까 아주 달동네만 특별히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지역에도 마을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더라고. 우리같이 노인들만 있고 어려운 마을을 골라서 해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나서서 우리 마을을 알려야겠더라고.

한 덕 환

어렸을 때 동네의 모습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안산이라고 동산이 있었어요. 본래는 앞산인데 안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는 완전 놀이터였죠, 뭐. 동네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 애들은 축구하고 거기가 동네 앞마당이지.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멋있는 소나무도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거기서 영화촬영을 했던 기억도 있고, 청남초등학교 같은데서 소풍도 많이 왔지요, 뭐 딱히 근방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뒤에 강당이 있었어요. 연극도 하고, 여름에는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집이 시원찮았으니까. 식구들도 많고 그러면 여름에는 그냥 강당에서 또래들끼리 자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행사 있으면 거기서 하고, 어른들이 아이들 교육도 시키기도 하는 장소였었죠.



“안산은 우리에게는 놀이터이자, 마을사람들에게는 교류의 장이었어요. 마을이 잃은 것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하얀마을 아파트부터 동서타일까지 다 산이었었어요. 하나로 다 이어져 있던 거죠. 동서타일 옆쪽으로 방앗간이 있었고, 물레방아도 있었고요. 저쪽 운동동 쪽에서부터 물이 쪽 내려와서 그 일대가 다 전답이었으니까. 쪽 내려와서 거기에 물레방아가 있었던 거예요. 어려서 남일초등학교 다닐 때, 방앗간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다녔거든요. 방앗간에서 학교까지 십리는 되는 거예요. 책가방이랄 것도 없어서 책보를 메고서 냅다 뛰었죠. 고학년 대장 형이 하나 있어서, 다 같이 같이 뛰고. 놀기도 하고 아주 좋았던 곳이에요. 모든 생활하는 데 주축이 되었던 곳이죠. 아이들에게는 동네 놀이터였고, 동네사람들에게는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행사도 하는 소통의 공간이었어요.

방정은 샘이었어요. 바가지로 물을 퍼서 쓰곤 했는데 언제나 물이 항상 넘쳤었어요. 밑에 미나리밭도 있었고요. 흐르는 물은 요 앞에 서넛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었고. 논으로 밭으로 해가지고 용지까지 다 연결이 되어서 물이 넘어갔던 거죠. 이 샘이 앞으로 도시재생 할 때 주축으로 삼는 요 소입니다. 그걸 복원을 시키는 방법이 앞으로 우리가 하는 중점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놀이는 참 많이 했었지요, 주위에 밭이고 논이고 과수원이고 그런 게 있었으니까. 지금 저 옆의 공원이 포도과수원을 했었어요. 90년도에 용암지구 들어가면서 공원이 된 거죠. 무농정 공원 해가지고 공원이 된 거지. 무농정 밑으로는 금광 굴이 있었어요. 지금의 새빛교회 뒤쪽으로 굴이 있던 건데 거기가 입구는 무너져서 좁은데, 들어가면 안에는 넓었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그게 무너져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속에는 어딘가는 아마 있을 거예요. 무농정 앞쪽으로 계단이 있는데 아마 지금도 흔적을 찾기는 어렵지만 굴이 있긴 있을 거예요.

“안산은 우리에게는 놀이터이자, 마을사람들에게는 교류의 장이었어요. 마을이 잃은 것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엄청 많죠. 다들 여기서 살았으니까. 지금은 그런 흔적이 다 없어져버리고 동네도 빙 돌아서 아파트가 다 들어오니깐 그전보다 더 달동네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파트만 안 들어왔어도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파트가 다 들어와 버려서 완전히 달동네가 되어버린 거예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조권도 그렇지, 우리 집도 겨울 같으면 세시면 아파트에 해가 가려서 햇빛이 안 들어와요. 여기도 지대가 높은 곳인데 세시면 벌써 햇빛이 안 들어오는걸요. 저 밑에는 더 그렇지요. 요 앞에 대머리 해장국 있는 쪽은 더 일찍 지고. 바로 위에 아파트가 있으니까요. 마을에는 태양광에너지 한 사람도 있는데 그게 제대로 쓰지도 못하게 된 거죠. 일조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식당 바로 옆집이 지붕에다 태양광을 해 놔는데 햇빛이 가리니까 발전량도 작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위에는 아파트랑 거리가 있으니까 조금 난 거지만.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73년인가 74년도부터 시작을 했나 그럴 거예요. 요 앞에 냇물에 골짜기 같은 곳에서 직접 골재도 다 경운기로 실어오고, 마을 길 포장 같은 거 하고, 보도블럭도 깔았어요. 직접 노력봉사해서 한 거예요. 나라에서 다 돈 대준지 알지만 마을 자체에서 다 재료수급해서 마을 정비를 한 거죠. 그 때 고생했던 분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 계세요. 그때 내 나이가 스무 살은 됐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더 어린 애들도 했었어요. 열댓살 먹은 애들도 와서 하고. 동네에서는 안 나가면 벌을 줬어요. 하루 안 나가면 얼마를 내라 해가지고 집집마다 어떻게든 나왔거든요. 사실 내 동네니까 협조도 하는 거고. 안 나가면 벌을 주니까 자동적으로 협조를 하게 된 것도 있지만요. 길도 넓혀지고 조그만 도랑 같은 것도 복개도 하고요. 그 때 잘 해놔서 대통령상이랑 상금 받아서 그걸 기초로 번영회에 돈도 생기고, 회관 땅도 사게 된 거예요.

“고생스러운 작업이었지만 그때의 모습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마을사람들이 일군 노력의 결실이니가요.”

지금의 모습이 그 때 모습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도랑을 복개하니깐 길이 더 넓어진 거지요. 그런데 이 쪽으로는 시원찮아요. 마을 밑쪽은 큰 길, 새로 뚫은 길이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 위쪽도 소방도로 하나만 뚫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화재가 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은 소방차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본인 집 앞에 차들도 주차해놓고 하니깐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해요. 어쩔 때는 119가 들어가지 못해서 뒤에 차를 세워놓고 들것을 끌고 가서 한 적도 있고요. 소방도로가 이쪽 하나만 나면 좋을 텐데,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집들도 부지를 내놔야 하고, 시도 매입한 부지가 있어야 하고요. 이 길이 먼저 나고 취락지구 개선사업이 들어가면 두 번 일하지 않을 텐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아쉽기는 합니다.

물론 문화재인 한월동 고가 앞으로 길이 나는 것이 때문에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아요. 고가도 보면 앞쪽에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유리창 깨진 슬레이트건물. 그거 아주 보기 싫지요. 사실 작년에 문화재 관리하는 곳에서 그곳을 철거하기로 했었거든요. 사랑채 보수를 진행하면서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수만 마치고 철거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만약 했으면 이 앞길이 엄청 넓어지는 건데요. 한월동 고가도 완전히 앞애가 훤히 트이는 거고. 마을의 문화재인 그곳도 계획은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등등으로 잡아놨지만 쉬운 얘기는 아니지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요. 옛날부터 할머니가 그곳에 계시거든요. 자손들도 주위에 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소통해서 동네 발전을 위해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야죠.

통장 업무를 오래 하셨는데요.

저는 해양대학교를 나와서 상선을 십 몇 년 타고, 서울에서 십여 년 살았어요. 그러다가 94년 말에 이곳으로 내려온 거예요. 처음엔 아파트에 7,8년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또 집은 크고 해서 들어와서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형들도 나이가 들어서 농사도 못 짓겠다고 하니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대략 지었어요. 그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아무래도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통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2년만 딱 한다고 시작한 건데요. 하다 보니까 그만 두지도 못하겠고 그제 벌써 11년 되었네요.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통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에, 노인회에, 번영회에 다 연결되어 일이 많다보니 손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동네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딱히 마땅히 맡길 분도 없고요. 지금은 그래도 도시재생 쪽으로 사무국장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서 힘이 많이 나죠.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대머리에 살다가 중학교 때부터 나가 살았는데. 요새 다시 들어온 지 몇 년 안됐는데 열심히 하고 추진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도와주고, 만약 그쪽에서 못 하는 것 같은 것은 제가 하고 그러면서 마을일을 꾸리고 있어요. 동네 꽃길 가꾸기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을 잘 해서 갈등 없이 서로가 이해하면서 해야 하는 것인데요. 사실 그래도 그게 어떤 때는 충돌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해서 열심히 했다가 주춤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앞으로 서로가 협력하고 이해하면서 한 마음으로 이끌어 나가야죠. 갈등이 생기면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대머리마을이 가지는 가치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동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아파트만 있다는 것은 삭막한 거 아닐까요? 아파트만 있어선 사람이 사는 게 삭막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주변 아파트가 많이 생기니까 이 마을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쁘다면서,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한단 말을 많이 해요. 저도 아파트에서 살아봤지만 단지 아무리 잘 꾸며놔도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곳은 다닐 때 유심히 보고 예쁘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나도 이런 곳 살고 싶다고 한단 말이죠. 전 그것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봤던 자연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역사도 역사지만, 조상 대대로 간직한 이 마을이 이 도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많은 것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요. 촌동네지만 촌동네도 조화가 있어야 사람 사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아파트에 많이 살지만 언제나 우리가 사는 작은 마을을 부러워해요. 어릴 적부터 자연과 함께했던 그 마음이 남아있으니까요.”

저번에 시내버스 타는 곳에 화단을 조성 했어요. 그게 올 하반기부터 한 것인데요. 사람들이 자꾸 그곳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두고 타고 해서 싹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나무도 잘라낼 건 잘라내고 화단을 해 놓으니까 지금은 깨끗하죠. 그러니까 뭘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버스를 타는 사람은 매일 거기서 탈 거 아니에요. 예쁘다고 고생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동네도 그런 식으로 차차 하다보면 예쁘게 보일 거고 환경도 많이 좋아지겠죠. 그런 것이 바로 내 마을을 아끼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뒤쪽의 원룸촌은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요. 쓰레기를 길가에 마을에 아무렇게나 쌓아두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저희가 싹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뽀이 나거든요. 본인들 집 앞에는 그렇게 안 해 놓으면서 말이죠.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모자라요. 원룸 쪽엔 오래 사는 사람들보다는 몇 달 살다 가는 사란들이 많해보니까 친해지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요. 불법투기가 심해서 구청 청소과에 단속해달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카메라는 많이 달아놨는데 잘 개선이 안 됩니다. 차차 바뀌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예부터 대머리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은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수시로 나와서 쓸고 닦고 합니다. 자꾸 살피면서 지저분한 게 있으면 주위를 청소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어떨 때는 내 집 앞이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다 해 줘요. 눈이 와도 마찬가지로요. 일찍 일어난 사람이 뒤에까지 하고, 이쪽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이죠. 여긴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뚫은 길 위에 새로 지은 집들은 여기 살았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 온 분들인데, 같은 방서동이지만 거긴 거의 왕래가 없고, 관심도 없어서 사실 많이 아쉽죠. 동네일은 대부분 옛날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밑에 마을보다는 협조가 덜 돼요. 겨울에 눈이 오면 여섯시부터 벌써 소리가 나요. 마을에서 눈 치우라고 방송하는 것도 아닌데 이미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위쪽에서는 그대로 있는 데가 많아요. 물론 길도 넓고 골목보다는 넓은 길이라 그렇기는 하겠지만, 며칠 동안이나 미끄러워 가지고 차가 올라가지고 못한다니까요.

“도시재생을 통해서 원마을 사람들과 새로 온 마을사람들이 소통하는 자리가 매우 의미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도시재생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랫동네, 윗동네가 같이 하다보니까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아주머니 분들 많이 오셨어요. 화단을 조성해주었는데 누가 주라고 안 해도 알아서 꽃에 물도 열심히 주시고요. 도시재생 하면서 서로가 협조하는 게 눈에 보여요. 좋은 현상이죠. 처음에는 도시재생이 뭔지도 몰랐어요. 동네 발전을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잘 되면 지원을 해주니까 동네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이 정도만 알았어요. 우선은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겉모습만 알고 있다가 그 사람과 소통을 하게 되니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한 건 별로 없어요. 마음을 많이 터놓는 거죠. 열린 마음이지요.

요즘에는 대문 없는 집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옛날엔 대문 있어도 열어놓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여기 도둑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집에 살면서 도둑을 세 번 맞았어요. 할 수 없이 cctv 달아봤는데도 못 잡더라고요. 도둑을 자주 맞으니까 안 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에는 신경 안 쓰고 다녔어요. 그거다가 차츰 이 주위에 다들 도둑맞은 집들이 늘어나니 대문도 닫히게 되었어요. 그래도 요즘 2년 동안은 뜸한 것 같네요. 저희는 이번에 집 뒤에도 cctv를 하나 달았어요. 총 4대가 되는 건데, 달면서도 마음이 썩썩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대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동네에 대문이 다 열리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대문도 열고 **마음도 열고**요.



한 천 동

어렸을 때 기억 얘기해주세요.

내가 태어났을 때는 편지도 ‘청주 대머리’ 이렇게만 써도 그냥 들어왔어. 주소도 전부 청주 대머리로 써서 편지가 들어올 정도로 여기가 유명했지. 내가 지금 40년생이니까 만 80인데, 열 살 때 6.25가 났어. 여기 우미아파트 지은 곳이 월오천인데, 논은 없었고 갈대밭이었어. 6.25때 거기서 군인들이 일주일씩 총 쏘는 것만 배워서 전선으로 전부 올라갔어. 거기서 훈련을 했어. 그때 전방 군인들은 수원까지 올라갔는데, 후방 군인들과 미군들이 여길 지나가게 됐어. 그때 빨치산이라고 공산주의 세력이 있어서 남한사람들이 이북으로 못 넘어가서 저쪽 높은 산에 숨었다가 배가 고프니까 밤에 와서 밥을 해달라고 총을 가지고 내려오고 그랬거든. 그런데 미군들이 지나가다 이제 빨치산 첩보를 들었으니 잡아야할 것 아냐. 그래서 잡으려고 보니 빨치산인지 아닌지 미군들이 뭘 알아. 전부 한국 사람들이니까. 이 동네를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다고. 그 때 이장이었던 한필동 씨가 그 당시 대학교를 다녀서 영어를 했어. 영어로 미군 장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불을 안 질렀거든. 참, 그런 일도 있었지.



또 이 동네가 단합이 잘 됐어 뭐든지. 새마을 사업 할 때도 단합이 잘 되가지고 우수상 받았거든.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 때는. 아쉬운 점은 정이 없다 이거여. 옛날에는 서로 나눠먹고, 친척 간에 명절 때는 어른들한테 세배도 다니고 공경하는 문화가 마을에 잘 깔려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렇게 정이 없는 세월로 변해가는 게 아쉬워. 이 동네가 우리 어렸을 때는 90%는 한 씨들이 살았어. 그 후로 전부 떠나가지고 지금은 40%? 그 정도만 한 씨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의 유물이나 흔적들을 잘 보존하지 못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지.

예전에는 어느 곳이든 초상이 나면 그 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준비했어. 상여 메고 몇 십리, 보통 한 15km씩 메고 가서 장사 지내고 그런 시절이었거든 옛날에는. 동네에서 상여계가 만들어져서 계원들끼리 왕래하면서 지냈지. 사실 옛날에는 어느 동네고 그런 게 있었으니까.





방정샘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세요.

여기 우물이 방정 샘이 있고 경로당 앞에는 서넉 샘이라고 있어. 지금은 메꿨지만 샘이 있었어. 모양은 똑같아. 네모진 돌로 했지만 거기는 방정이라고 쓰고 여기는 글씨가 없고 그냥 쓴 거야. 마을 샘은 암만 가물어도 물이 철철 흘렀어. 앞이 전부 논이었으니까. 고래실이라고 하지, 물이 안 마르는 논. 고래실 땅으로 전부 논이었었지. 그 물이 흘러서 방죽에 모이는데, 이게 자연으로 된 게 아니라 동네에 불이 나면 불을 끄려고 동네 사람들이 지게로 판 거야. 방정 샘물이 항상 들어가서 고여 있다가 불나면 그걸로 끄려고, 용지라고는 되어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판 거야. 요 밑에 방죽 연못이 그거야. 그게 사람이 판 거야 불나면 끄려고. 옛날에 불나면 초가집이니까 장작도 떼고 해서 불이 많이 났거든.

한월동 고가 쪽에 가면 강당이 있었어. 동네 사람들 회의하고 오락하고

그런 곳이었어. 무농정하고 똑같이 높은 건물이었어. 거기서 연극도 하고, 근처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겨울이면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던 자리인데 그게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지.

마을은 개발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현대화가 되니까 개발은 됐지만 사실은 동네를 위해서는 개발된 것들이 안 들어왔어야 해. 여기 중흥아파트, 자이아파트 그 곳이 예전에는 일본사람들이 금을 캐던 자리였어. 금을 사람이 들어가서 캐는 게 아니라, 거기가 무심천 냇가서부터 물이 많으니까 배를 띄워서 흙을 파면 금이 나왔거든. 금을 차때기로 일본으로 싣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청주 시장이 그걸 농사지어먹으라고 농토를 만들어서 개발을 시켰다고. 미군들 브로드자인가 미는 걸 빌려서 논을 만들다가 아파트를 지은 거야. 요 밑에도 도랑이 있다고. 도랑에서도 지금은 시멘트를 발라놨지만 거기도 흙 파면 사금이 노랗게 나왔어. 여기 보니까 금이 많더라고. 논이었으면 좋았지.

그리고 무농정은 6.25 땀가 훼손됐었어. 다시 지은거야. 전국 한 씨들한테 성금을 모아서 다시 지었어. 무농정 안에 가면 성금을 준 사람들이 다 써있어. 마을 앞 정류장 옆에 있는 것은 효도를 하면 나라에서 효도한 사람한테 표시를 해 줬거든. 네 분의 표시를 해준 걸 한군데에 모셔 놓은 거야. 부모가 병들었을 때 모든 걸 전폐하고 부모 봉양을 한 거지. 효자 표창이지. 집에 가보로 모신 걸 종중에 있는 분 네 분을 한 군데에 모셔 놓은 거지. 집들이 전부 없어지니까. 제사는 안 지내고. 나름 옛 문화가 이어진 증표니까 마을에서 관리를 잘 해야지.



아이들 키우셨을 때 마을의 기억 들려주세요.

그땐 다 어려웠지. 공부 가르치려면 땅 팔아서 가르쳤지 뭐 할 게 있어. 대학교 가르치려면, 여간 부자는 대학교를 못 가르쳤어. 하도 교육비가 비싸기 때문에.

내가 40년생이니까, 크면서 45년에 해방됐고 그 다음해 바로 국민학교 일곱 살에 들어갔는데, 열다섯살 먹은 사람도 들어오고 그랬어. 왜냐하면 공부를 못하고 농사만 짓다가 한꺼번에 배우던 시절이 있었거든, 그때가. 그 전엔 1학년도 한 반에 7-80명 있었지. 여기는 남일면에 속했는데 남일초등학교가 십 리야. 4km. 옛날에 뭐가 있어, 양말도 밑바닥 떨어지고 고무신 겨울에 신고 거기까지 걸어가야 해.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요. 그래도 운동

회 때 제일 재미있었지. 추석 때 송편 뒀다가 운동회 때 가서 그거 먹고 달리기 하고 옛날에 다 그랬지 뭐.

동네 잔치할 때 천막을 마을에서 늘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여기 있어. 그게 한 50평을 쳐도 충분할 정도였다고. 동네 잔치할 때는 그걸 치고 명석 깔고 동네 사람들이 음식하고 먹고 그랬지. 그 전엔 결혼식 할 때 잔치하고 초상날 때 하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쓴 거였지. 지금도 경로당에 있어 다. 풍물놀이 장구 같은 것도 다 있고.

마을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우리 동네가 발전하려면 욕심 버리고, 작지만 알찬 동네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해. 이 동네가 그 전에는 분평, 장성, 원마루시장, 영운동 아파트 지은 곳까지 전부가 방서리 땅이었거든. 지금은 전부 분리되고 많이 작아졌지. 그렇지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내실을 채운 마을로 만들 수 있지 않나, 그게 내 생각이지. 물론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마을에 어린아이를 둔 집들이 거의 없어. 전부 나이 먹은 사람들만 있지. 젊은 사람들은 전부 아파트 생활하고, 제 아버지 집은 좋은데도 안 들어와. 세대가 편한 세대이니 아파트는 또 살면서 여간 편해? 그게 좀 아쉽고 애들이 좀 들어와서 지냈으면 하다가고,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테니 안 오는 거겠지 뭐 생각해요. 물론 마을일은 하기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방서동은 전설에만 남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사업에 뛰어든 계기가 있으셨어요?

서울에서 대기업을 그만 두고 2~3년 전에 대전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데 거기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속해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레디스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나비스로 바뀌었어요. 그 팀을 유지, 보수, 운영 하는 데 근무를 했어요. 프리랜서로 2년 정도 사이트를 운영했죠. 거기가 대전에 사무실이 있는데, 효촌에서 대전까지 출퇴근을 했어요. 대전에서 문의, 신탄진으로 가다보면 도로가 잘 되어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물안개가 외국 영화에 나오는 시골 같아요. 퇴근해서 오다보면 널널해서 커피도 한 잔 하고, 2년 동안 아주 행복한 직장생활을 했어요. 내가 30년간 서울에서 피터지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생활을 왜 마다하고 서울에서 살았나.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지금까지 쪽 돌이켜 보니까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결혼하고 애 키우고 직장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기억밖에 안 나는 거예요. 뚜렷한 기억이 없더라고요.



한 노동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보다는 살아갈 시간이 더 적은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은지 고민하다가, 여기서 한번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자 남한테 크게 보여주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대머리마을을 왔다 갔다 하던 그 당시에 아파트를 짓더라고요. 거의 올라온 상태에서 확인해봤는데 저 앞에 회관 4층에 먼지가 엄청 쌓여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게 공사 때문인지는 상상도 못하고 왜 이렇게 먼지가 쌓여있지? 이런 생각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건강,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는 동네에서 아파트를 못 짓게 하면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당시엔 어르신들이 청주에서 하는데 해줘야지 하셔서. 그걸 지금까지 그냥 두셨더라고. 청주시에서 하는 건데, 무슨 따지를 거느냐, 이런 식이었던 거지. 나의 권리 주장은 안하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건 아니다 아무리 청주시에서 사신다 해도 그동안 여기가 집성촌이고 고향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청주 한씨 분들은 청주에 대한 애착이 강하잖아요, 타지분들보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달동네가 된 것이 아닌가. 양보하다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해 봤죠. 그랬더니 다 타지 사니까 어차피 눈에 안 보이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눈에 보이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지만. 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는 가끔 와서 제사지내고 올라가면 대머리가 이렇게 변해고 있었는지는 신경 못 썼죠. 당장 닥친 일을 해야 하니까. 나도 와 보니까 내가 이걸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어서 자꾸 이야길 했던 거지. 떠나있으면 나도 신경 못 쓰거든요. 마음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어도.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여긴 나의 고향이지만 더 크게는 한 씨라는 거, 집성촌이잖아요. 시조 때부터 쪽 여기에 살았고. 한 씨 모든 사람도 관계가 있고, 그 전에 주민들이 우선이지만. 종종의 터도 있고, 대부분이 요 근방에 한 씨들이 살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다들 떠나있고 어르신들만 있고. 그래서 10년, 20년 뒤엔 이 마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하는 게 가장 걱정되죠. 지금은 어르신들이 애착을 갖고 하고 있지만 떠나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언젠간 저 세상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누가 지킬까 이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갈등을 조절하는 부분들이죠. 저희는 원주민들과 뒤쪽의 새로운 원룸촌 주민들 사이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오래 정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이 주위에 직장 있어서 잠깐 머물다 가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마을에 대한 인식이 얇을 수밖에 없죠.

대머리마을에서도 한참 쓰레기를 많이 버렸었어요. 작년부터 계속 같이 쓰레기 줍고, 홍보도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화요일은 새벽에 쓰레기차가 오고 목요일엔 음식물쓰레기 차가 오는데 전날 버려주고 하니까 많이 개선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원룸촌은 잠시 왔다 잠시 가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잘 안될 수도 있긴 한데, 잘 지켜

지지가 않아요. 집주인하고 대화도 해 보고, 입주민드라고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해결되겠죠, 그런 면이 제일 힘들어요. 특히 저 쪽에 보면 원룸하고 반대쪽 큰길 사이에 쓰레기를 다 원 마을쪽으로 다 버리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사람이 왜 쓰레기가 있는 장소는 다 쓰레기장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계속 버려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실랑이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죠.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이걸 하나로 묶고 융화를 시킨다는 게 힘들지만 그 경계선을 깨야 서로 좋아지고 진짜로 공동체의식이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미친 상태죠.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취약지역 개선사업이니까, 우선 여기부터 개선사업 하면서 단계적으로 넘어가서 넓게 한다면 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우리 마을의 가치 얘기해주세요

아무래도 모든 일을 하려면 같이 해야 되겠죠. 공동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같이, 함께, 영어로는 투게더라고 하죠? 혼자서 힘든 것 같아요. 마을이 형성된 원천 자체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마을이 형성 된 거잖아요. 혼자 살려면 자연인처럼 사는 게 낫지 같이 마을을 형성해서 살 필요는 없겠죠. 같이 살다보면 좋은 일도 있고 가끔 불편한 일도 있어요. 요즘에는 아파트 문화가 형성이 되서. 이런 문화는 낯설어 하지만, 우리는 마을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같이 함께 살다보면 좋은 일이 많더라고요.



우리의 손으로 직접 바꾸어나가는 마을의 모습 기록

바람도 쉬어가는 방서동 고택길

2019년 방서동은 이미 한차례 마을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성친화안심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동네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월동 고택 앞에 밤중에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로고젝트가 설치되었고, 허름한 담장들 몇 곳이 깨끗하게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 변화의 기록들이 남겨져 있지 않아, 올해는 담을 수 있는 과정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보았습니다.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목소리와 그리고 마을에 대한 우리의 소망까지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머리공원 옆 계단정비

여성친화안심길 조성사업과 더불어 대머리공원 정비사업도 동시에 진행되는 바람에 올해는 더욱 신경 쓸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문화재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신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긴장도가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무사히 통과되어 기존의 일정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계단 청소, 채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골목길의 벽화와는 다른 웅장한 스케일의 계단은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입되셔서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공원에서 흘러나온 나무, 토사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맺은 자원봉사단체의 도움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었죠. 실질적으로 이 계단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앞 아파트의 학생들은 등하교길에 이 길의 변화를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계다가 밤중에는 가로등이 미비하여 굉장히 위험한 구역으로 꼽히는 곳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기계로 바탕색을 1차적으로 칠한 후, 본격적인 채색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많은 인원이 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오전에 시작한 채색을 점심시간 전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늘거리는 나뭇잎이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것만 같은 청량함. 기념사진을 찍는 활동가들에게서 그 어느 때보다 힘찬 파이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차 적인 채색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유지, 관리입니다. 마을 분들이 종종 지나시며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주우시면서 애정을 듬뿍 담아 이 공간을 사랑해주시길 믿습니다. 추운 11월의 어느 저녁, 환호성과 기쁨으로 치러진 점등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안전하고, 더욱 아름다운 계단 길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으로 올 겨울은 대머리공원과 이 계단 길을 자주 찾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마을 골목, 그 변화 과정의 기록

2020.11.26.

방서동 여성친화안심길 조성사업 결과보고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방서동 대머리마을은 청주여성친화안심길 사업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정비하는 데는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여러 기관과 단체의 도움으로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환경개선에 동참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셔서 2년을 연이어 실시할 수 있었는데, 놀라운 점은 시민들의 이런 움직임에 시에서도 함께 동참해서 방서동 바로 옆의 대머리공원 환경정비 사업을 동시에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먼저 움직이고 뒤따라 관이 움직임을 취하는 좋은 사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앞 아주 큰 아파트단지가 들어왔지만 방서동 대머리 마을은 오히려 도심공동화의 위기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지와 여러 협력단체의 도움, 그리고 시민들의 봉사참여가 있었기에 예전보다 더 활기찬 마을이 될 수 있었죠. 또 이번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더 큰 꿈을 안고 도시재생사업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지요. 내년이 더욱 기대가 되는 방서동 대머리마을입니다.



허진옥 (공공디자인이즘 대표) : 시작할 때 뵈고 마무리하는 단계에 한 번 더 뵙니다. 사실 여성친화안심길은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보아도 결국은 가족친화에 맞닿아있었습니다. 디자인 요소 또한 보편적인 디자인과 맞닿아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서동에 했던 디자인도 여성친화안심길이라고 붙여져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디자인 관점에서 많이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도 마을의 고유한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을 넣으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다른 점이 있다면, 작년에는 무농정지와와 거리가 멀어서 저희가 저희들끼리 디자인하고 마을 어르신들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중간에 한 참 날 좋을 때 그 심의를 기다리느라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었죠. 또한 여성친화안심길 보다는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는 정비사업 목적의 제안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의 끝 쪽에 무농정지를 비롯한 방서동의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이미지, 스토리 판넬을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마을을 디자인할 때 구름과 바람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디자인을 위한 현장실사를 굉장히 여러 번 다녀왔는데, 그때 마다 찍는 사진에 구름이 한 번도 찍히지 않는 것이 신기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사실 이 마을이 언덕위에 있는 아주 고즈넉한 마을인데 그 언덕보다 더 높은 아파트가 마을 앞에 들어서서 일조량을 가리는 등의 문제들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꿔보기 위해 바람과 구름이 연결되는 디자인을 녹여 넣어 봤습니다. 그림으로도 그려 넣고, 담장 위에도 구름을 철판으로 따서 넣었습니다. 계단 역시 펜스 부분에 나무가 무성해져 초록 잎이 가득할 때, 잘 보이는 위치에 구름을 따서 넣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로고젝트도 마을안의 고택 옆에 있던 것과 그림만 다르게 해서 계단에 설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결과 보고할 때 가보니까, 그 로고젝터와 가로등이 없었을 때 얼마나 어둡고 위험한 장소였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도 중간쯤에 가로등이 하나쯤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전기 같은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서를 잘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잘 끌어다가 안전을 우선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죠. 그래도 이번에 설치한 가로등은 안전한 위치에 잘 설치를 해서 저희의 설명이 충분히 닿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마치고 제가 듣기에는 마을주민들의 만족도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관이 되는 긍정적인 사안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작업을 했던 저희들에게도 굉장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주신 (주)기억록과 청년예술그룹 (주)프로킹도 저희와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이 두 팀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와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서동 여성친화안심길 조성사업 과정 요약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약 290여명의 활동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세 부 사 업	일 시	내 용
안심길조성에 대한 자문회의	2020.04.29	환경개선 및 안전을 위한 안심길조성에 관한 자문회의 참여 : 청주시 여성가족과, 용암2동 행정복지센터, 흥덕경찰서 범죄예방팀, 상당경찰서 생활안전과 · 여성청소년과, (주)공공디자인이즘, (주)기억록
업무 협약	2020.05.13	용암2동 행정복지센터, 용암2동 아이도단
	2020.05.22	(주)공공디자인이즘, (주)기억록, (주)프로깅
성인지 감수성교육	2020.07.08	문화를 바꾸는 도시 디자인 이야기 강사 : (주)공공디자인이즘 허진옥 대표
간담회	2020.05.07	청주시 여성가족과, 공원조성과, 용암2동 행정복지센터
	2020.05.13	용암2동 행정복지센터, 용암2동 아이도단
	2020.05.22	(주)공공디자인이즘, (주)기억록, (주)프로깅
	2020.06.15	방서동 도시재생협의체
	2020.09.19	(주)공공디자인이즘, (주)기억록, (주)프로깅
	2020.11.10	방서동 주민
	2020.11.12	젠더 전문가
모니터링	2020.09.10	여성친화안심길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2019년 안심길조성 보수작업 및 2020년 환경개선 모니터링
	2020.11.03	여성친화안심길 조성을 위한 밤모니터링 대머리공원 및 계단의 안전 모니터링
	2020.11.10	여성친화안심길 조성을 위한 낮모니터링 여성친화도시 청주시민을 위한 안심길조성의 성과모니터링



안심길조성 환경정화 및 개선사업	2020.09.14	환경개선 정화활동 장소 : 대머리공원 옆 계단 참여 : 용암2동주민, 마을주민, 상당경찰서, 협약단체
	2020.09.22	계단 및 벽 밀그림작업 장소 : 대머리공원 옆 계단 참여 : (주)공공디자인이즘, (주)프로깅, (주)기억록
	2020.09.23	계단 채색 작업 장소 : 대머리공원 옆 계단 참여 : 용암2동 주민동아리(수채화반), (주)공공디자인이즘, (주)프로깅, (주)기억록
	2020.05.13	안내판 및 부자재 설치 장소 : 대머리공원 옆 계단, 단재로 293번길 참여 : (주)공공디자인이즘, 마을주민
점등식	2020.05.22	안내판 및 부자재 설치 장소 : 대머리공원 옆 계단, 단재로 293번길 참여 : (주)공공디자인이즘, 마을주민
	2020.11.23	대머리공원 여성친화안심길 로고젝터 점등식 장소 : 대머리공원 옆 계단 참여 : 방서동 및 용암2동 통장님, 청주시 여성가족과, 용암2동 행정복지센터, 상당경찰서, (주)공공디자인이즘, (주)프로깅, (주)기억록, 시민참여단
결과보고회	2020.05.07	대머리공원 여성친화안심길 결과보고회 참여 : 시민참여단 및 젠더전문가, 청주시 여성가족과, 용암2동 및 방서동 주민, 상당경찰서, (주)공공디자인이즘, (주)프로깅, (주)기억록



과거 · 현재 · 미래, 아이들이 뛰어노는 방서동

도시재생대학 참여 기록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동네에 아이들이 많으면 좋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로 인해 북적거렸던 마을이 조용하니, 그때가 그리운 것이겠죠. 어떤 마을이 되길 원하시냐는 모든 질문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대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올해 방서동 대머리마을 어르신들은 청년회장님을 주축으로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하셨는데요, 그때 최종발표 자료의 타이틀이 바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방서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을이라는 것은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마을이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요즘의 마을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농촌으로 가면 갈수록 심한 상황이기는 한데, 도심 속의 노인중심 마을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노인들뿐인 마을의 특징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심 속에 있는 노인들뿐인 마을은 더할 거예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마을 자체 내의 자족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데요, 이런 마을들은 정서적으로도 매우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이 곧 노인들도 살기 좋은 마을이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나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마을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마을의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번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마을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면 마을의 경제력을 높일 수 있을지 많은 고민들을 하신 듯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고민해서 마을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주



민들은 ‘우리 마을’이라는 공동체 의식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늦은 밤,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도시재생대학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나름 치열한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우리에게 또 다른 자극이 됩니다. 지금, 퇴근해서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보고만 싶어 하는 게으른 직장인의 마음이 잠깐 초라해집니다. 치열함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님을, 느리지만 깊은 샘을 지키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기록을 오늘도 차곡차곡 담습니다.



우리만의 골목공유문화를 만들어내는 방법

다음세대를 위한 기록프로젝트, 그 여정의 결과

‘공동체의식’이라는 말의 함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공동체에 반하는 의식을 가진 이들을 소외시키고 굴복시키는 역사가 정당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예로는 수업시간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학생에 대한 선생님과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있죠. 단순한 궁금증인 ‘왜?’를 모든 이들이 주류에 따르지 않는 이단아로 취급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유난히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부끄러운 일면입니다. 이런 문화로 인해 젊은이들은 ‘공동체의식’을 과거의 획일화된 문화에 개인이 속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공동체의식에 반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의식은 획일화된 단체가 아닌, 각각의 다른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의식체계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짚는 공동체의식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비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구성원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비판적인 개인들이 공동체를 더욱 더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머리마을에서 발견하는 공동체의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뿌리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품앗이, 두레, 향약과 같은 마을공동체 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가깝게는 1970년대 실시된 새마을 운동에서 그 맥락을 찾을 수 있죠. 물론 당시의 공동체는 마을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일면이 다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공동체의식으로 마을이 발전하고 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서 수많은 개인들이 목살당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죠. 그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동체의식에는 마을 더 위의 단위에서 내려져 오는 강제적인 권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권력이 어느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마을 주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여하는 것도 개인의 의지에서 발현됩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건강한 개인이 현재의 대머리마을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공동으로 심은 마을의 꽃이 시들어 갑니다. 누구하나 강제하지 않았지만 올 뜨거운 여름에 마을 주민들이 물을 한 바가지씩 퍼서 꽃에 부어주셨습니다. 덕분에 대머리마을은 봄, 여름, 가을동안 화사한 꽃길 골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을 주민 스스로의 참여가 이루어 낸 결과입니다.



대머리마을의 공동체의식이 발현되는 공간은 바로 이 ‘골목’입니다. 골목을 공유하고 향유하는 문화가 어르신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우리 마을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골목은 물리적인 공유를 넘어선 정서적인 공유가 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골목 그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골목에서 만나 안부를 전합니다. 골목을 함께 가꾸고 청소하고, 벽화를 그리면서 개인의 다양한 일상을 공유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잡음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갈등도 나타나죠.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록을 하면서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마을의 모습이 아니어서, 우리의 기록이 과연 가치 있는 기록인지 의심이 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옛날 사람 면만을 보이는 어르신들에게 유교강의를 듣고 있자면, 인터뷰를 접어야하나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말을 어떻게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그럴 듯하게 만들어야하나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조상님들이 보존하는 가치를 나 몰라라 하는 놈들이 많아.”

“종중 재산을 어떻게든 지키면서 나아가야지,

지들 돈 불릴 생각만 하고 있어.”

“도시재생이라고 떠는데 실상 돈 되는 것은 없으니까

다들 하려고 하질 않는 거지.”

이런 말들을 다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너무나 다른 어르

신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살고 계시는 마을이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시냐고 말이죠. 정말 다른 말로 대답해주셨지만 놀랍게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소통’ 단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소통’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현재 도시에서 섬처럼 떨어져있는 이 마을이 엄청난 관계의 빈곤을 겪고 있다고 여기셨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끼리의 소통, 외부인들과의 소통, 지자체와의 소통을 계속해서 원하고 계셨습니다. 마을에서 진행하는 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진정한 소통’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통은 없지만 깨끗한 마을? 소통은 없지만 편리한 마을? 그분들에게 소통이 없는 마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보다 쾌적하고 보다 발전된 곳에 살고 싶으시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면 모든 분들은 차라리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힘들게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일하지 않고 말이죠.

그렇다면 그 소통의 과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한 건강한 공동체문화와 맞닿아있습니다. 누구보다 개성이 강하고 뚜렷한 이들이 모여 소통하는 과정, 그리고 그곳에서 고성미 오갈지라도 끝까지 소통하려는 의지. 실제로 마을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마을에서 투덜이로 불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결국 마을을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닌, 로컬중심의 트렌드를 누구보다 빠르게 쫓고 계시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골목이 없는 삶에서 마을 공동체의식을 어떻게 형성하고 공유해야 할까요? 물론 공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골목이 없다고 우리가 만나는 곳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초 개인화된 모습으로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골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온라인 골목이 점차 밖으로 나와 우리 아파트의 물리적인 골목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프레임을 깨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남자는 어떻게, 여자는 어떻게,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프레임과 더불어 가난하거나 돈이 많다는 것의 프레임까지 다 벗어던질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보다 개성적인 나로서 공동체의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마을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럴듯한 결과보다는 좋은 문제를 도출해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문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습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록에서 마을 주민분들이 본인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보다 더 꺼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공론화시켜서 결국은 좋은 문제로 만들어 과정까지도 기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의 가장 좋은 문제를 발견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협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바로 가장 위대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을의 유일한 커뮤니티인 경로당이 닫혔습니다. 한 아버님은 ‘그냥 두 늙은이 집에 앉아 서로 얼굴만 보고,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있지.’라는 말로 요즘의 상황을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져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 공포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버터내는 다양한 방법들을 SNS상에서 공유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눈이 안 좋아서, 거동이 불편해서, 몸이 말을 안 들어서 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였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사진을 찍고 웃고 떠들며 그림을 그리는 일은 그 나름대로 엄청난 이벤트였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가면 요구르트, 두유, 빵 한보따리를 손에 마구잡이로 들려주십니다. 같이 먹지 못하니, 싸주시는 그 마음에 더 머물다 올 것을, 더 들어드리다가 올 걸 하는 아쉬움이 늘 남았습니다. 불쑥 찾아가 땀하니 돌아오는 것, 남은 어르신들이 괜히 더 쓸쓸해하시지는 않을까 뒤돌아보고 머뭇거리던 모자란 제가 떠오릅니다. 이 기록을 만나 더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조용하고 느린 하루 중에 한번은 웃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리고 깊은 샘

방 서 동 대 머 리 마 을 기 록 프 로젝 트

기획/글. (주)기억록
사진. 강동근, 이수민
편집/디자인. 이경민

청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이 책은 2020 청주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주최

청주시
CHEONGJU CITY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CHEONGJU CULTURAL INDUSTRY
PROMOTION FOUNDATION